

금호타이어, 천연고무 가격급등 우려

우리증권, 톤당 2100달러로 45% 급등 ... 가격 전가 어려워 경영악화

우리투자증권은 8월29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원자재가격 상승부담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목표주가를 2만1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30% 낮추었다.

그러나 2/4분기 실적부진과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해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했다.

우리증권 안수웅 애널리스트는 연평균 천연고무 가격이 톤당 1450달러에서 2100달러로 44.8% 급등할 것으로 추산돼 금호타이어의 2006-07년 영업이익을 당초 추정치 대비 각각 38.8%, 38.2%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.

안수웅 애널리스트는 금호타이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2005년 3/4분기까지 모두 제품가격 인상으로 상쇄했으나 2005년 4/4분기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10%를 넘게 올라도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금호타이어의 2007년 추정실적 기준 주가이익배율(PER)은 8.2배로 자사 커버리지 기준 제조업 PER 9.4배보다 12.8% 할인된 상태이지만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우려가 남아있어 당분간 주가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대호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29>